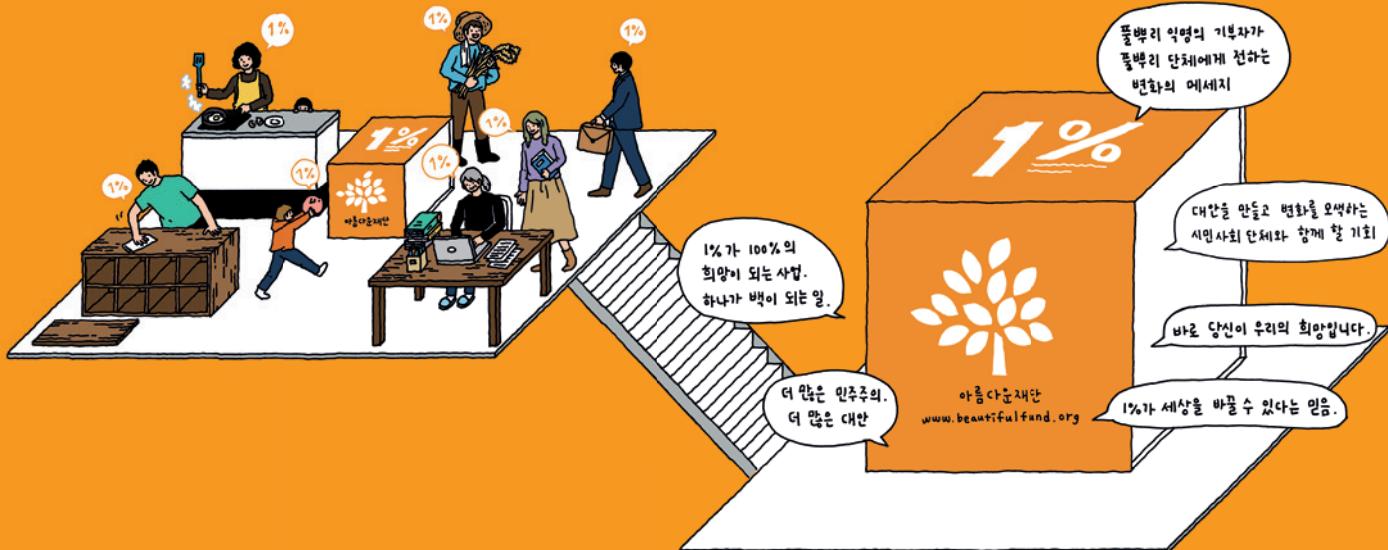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임팩트 보고서

'시나리오'를 쓰듯 사회의 '변화'를 쓴 기록을

이웃의 고통에는
가장 가까이에,
미래의 대안을 위해서는
가장 멀리



이웃의 고통에는
가장 가까이에,
미래의 대안을 위해서는
가장 멀리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임팩트 보고서

'시나리오'를 쓰듯 사회의 '변화'를 쓴 기록들

발간사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작은변화가 큰 변화를
이끈다고 믿습니다. 그 변화를 '시나리오'를 쓰듯
구체적으로 써보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에 스며든 작은변화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 걸어온 변화의 방향이 옳았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립하고자
활동을 정리해 보고서로 펴냅니다.

목차

하나.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소개 04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06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성장해왔습니다 08

공익의 확장, 자선을 넘어 변화로 10

변화의시나리오, 이렇게 씁니다 12

둘.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가 이끈 변화들 14

공익적 가치 확산 측면에서 본 변화 16

사회적 파급 17

인식 및 태도 변화 20

제도 변화 23

시민사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본 변화 26

활동력 강화 27

네트워크 확대 30

지속성 강화 33

그 외) 낯선 개념 알리기 36

셋. 지금껏 이끈 변화, 지표로 확인해봤습니다 40

2개의 핵심지표와 6개의 성과지표 42

넷. 사회 변화의 조력자, 아름다운재단 44

아름다운재단의 미션과 비전 46

부록

① 이끌어낸 제도 변화 48

② 새롭게 알린 낯선 개념 50

③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 제작물 52

한눈에 보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임팩트 보고서 54

하나.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소개

모둠 활동

우리안의 작은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아름다운재단은 변화의 씨앗이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시민모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변화를 향해 제시하는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2000년에 설립한 아름다운재단은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1% 나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기부자들이 나눠주신 월급이나 용돈, 생활비의 1%를 모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나누면 그것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소중한 ‘1%기금’이 소외된 이웃을 돋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사용되길 바랐습니다. 여러 설문조사와 자료조사 끝에 2004년 ‘풀뿌리’와 ‘변화’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평범한 풀뿌리 시민들이 나눈 1%기금이 또 다른 풀뿌리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선순환.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단체에게 나눈 1%가 100% 공익효과로 돌아오는 방법. 고민 끝에 사회 변화에 앞장서며 공익활동을 하는 ‘풀뿌리단체’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업명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목적
다양한 공익활동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내용
시민사회단체, 시민모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함

1%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하나가 백이 되는 일
1%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달려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역시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2004년 첫 공모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선정에서부터 지원금 지급, 캠페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날 시민사회에 하나의 의미로 자리잡기까지 17년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2004 사업의 태동기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시행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고자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이빠진동그라미’ 사업, 사업 홍보 및 후원자 모집·캠페인을 지원하는 ‘개미스폰서’ 사업,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대안을 만드는 ‘변화의시나리오’ 사업,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원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3년간 장기 지원하는 ‘뜨거운감자’ 사업이 그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돋는 4가지 사업 중 하나였던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시간을 거듭하며 시민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2012 사업 차별화·브랜드화 구축기

2011년에 설립 1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재단은 비전에 맞는 한층 발전된 형태와 내용의 배분사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기존 사업을 개편하면서 3년간 장기 지원하는 ‘뜨거운감자’ 사업, 변화를 위한 대안을 만드는 ‘변화의시나리오’ 사업 두 가지를 통합해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했습니다. 두 사업은 각각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B’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기간과 금액도 차등해서 나눴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가 시민사회단체에 널리 알려지면서 ‘변화의시나리오’*라는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2018 양적 확대를 통한 사업의 성장기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 자리잡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2016년 아름다운재단의 2025 비전 선포와 함께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사업범주를 새롭게 재편해 활동기반인 ‘단체’를 ‘시민사회’로까지 확대한 것인데 그 계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시도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 ‘단체’만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권리나 환경 문제 등 공동체의 변화에 앞장섰고, 아름다운재단은 그들의 공익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의 확장이라 보고 ‘단체’와 함께 ‘시민사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내외부 요구와 환경 변화를 겪으며 끊임없이 변화, 성장해왔습니다.

*

이 외에도 브랜드화를 위해 풀뿌리단체의 홍보를 지원한 ‘개미스폰서’ 사업은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으로, 기자재를 지원하는 ‘이빠진동그라미’ 사업은 ‘변화의시나리오 인프라’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익의 확장, 자선을 넘어 변화로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많은 단체들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1%가 100%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제도와 행정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룹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준에 실행한 방식과 달리 새로운 시도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프로젝트,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주민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프로젝트 등 대상을 확대해 ‘공익활동’이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로도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단체 지원 대상 요건

-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의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 네트워크, 컨소시엄 형태도 신청 가능 / 미등록 단체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2,000만 원**

시민모임 대상 요건

- 시민모임 자체로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의 시민모임
- 지원금액 : **500만 원**

8년간 지원한 기금 42억여 원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 사업은 모두 210건입니다. 2012년 14건의 프로젝트에 3억여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원금과 지원 단체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는 45건의 프로젝트에 7억여 원을 지원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사회 변화에 앞장서는 단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에 큰 희망이 되어준 지원금

사회 변화를 이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재정이 부족해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작은 단체에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단체의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38%가 연간재정 규모 1억 원 미만의 작은 단체들이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은 210만 원인 청년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재정이 넉넉지 않은 곳에 힘을 실어주며 이들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금과 프로젝트 수

2012 14건/ 308,023,600원

2013 18건/ 400,540,000원

2014 23건/ 517,5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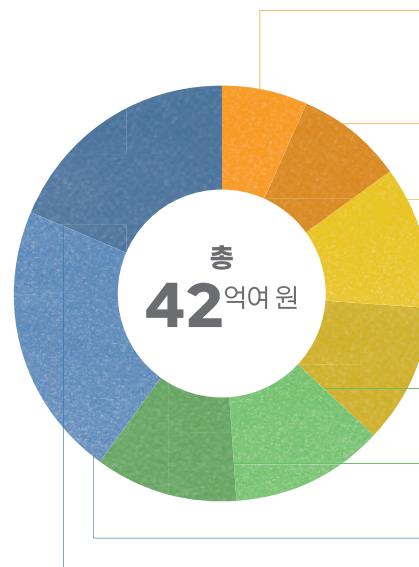
2015 23건/ 551,447,600원

2016 25건/ 606,636,800원

2017 23건/ 522,448,000원

2018 45건/ 742,988,400원

2019 39건/ 586,423,760원



※ 2012~2017년에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B’로 진행됨.

※ 사업별 지원금 : 프로젝트 A는 1년 3천만 원 3년 지원, 프로젝트 B는 1년 2천만 원 1년 지원, 프로젝트 A, B 통합은 2천만 원 1년 지원, 시민모임은 5백만 원 1년 지원.

※ 단체 지원금은 단체에 지원된 금액만을 뜻함(단체의 활동과 네트워크 등을 위한 재단의 사업수행비, 단체 지원비 잔액은 미포함).

지원 단체의 재정 규모

1억 원 미만

38% / 79곳

1억~2억 원 미만

24% / 51곳

2억~3억 원 미만

22곳 / 10%

3억~4억 원 미만

7곳 / 3%

기타

11% / 24곳

4억~5억 원 미만 9곳 / 4%

5억~6억 원 미만 6곳 / 3%

6억 원 이상 12곳 / 6%

※ 지원 단체의 재정 규모는 사업 신청 시 단체가 제출한 재정 규모로 신청 년도의 2년 전 것임.

(민간, 정부 프로젝트 수행비율 등 결산시점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기타 단체 24곳은 네트워크 사업(컨소시엄)인 경우이거나 재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민모임임.

변화의시나리오, 이렇게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변화, 막연히 바랐던 미래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바뀌어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쓴 시나리오는 재단과 단체를 넘어 우리 사회에 작은변화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한국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일정
2018 강원인연방회
KNPT

모두가 “내게” 되지
않는 사회
-한국· |주· 총· 권· 민-

“정상”은 없다!!
-여성환경연대-

관례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마을”
-서울여성회-

“당연한 권리 찾는
목소리 내기
-온망-

2020년까지
꼭 만들어낸
변화!
비공 세상을 바꾸는 꿈.

그녀들의 노동
-인천여성노동자회-

페미노동
(부천여성노동자회)

개인의 욕이
아닌 욕봄

둘.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가 이끈 변화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가 일군 변화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공익적 가치 확산’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라는 두 측면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또 성과를 거둔 사례도 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 청주 동북환경운동연합-

미래의
변화를 주는 일
- 아이들에게-

공익적 가치 확산 측면에서 본 변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향한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추진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프로젝트

8년간 210건

참여시민

7만 3,211명

정책 제안

125건

제도 변화

24건

이슈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153건

핵심목표

공익적 가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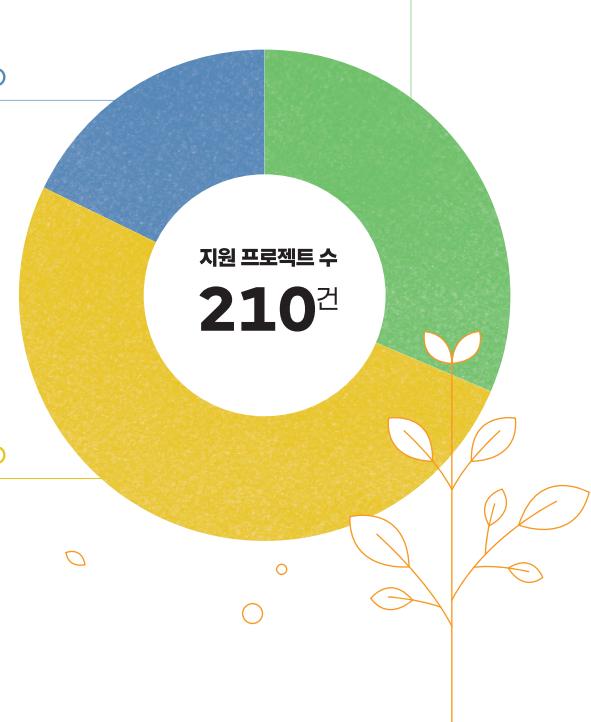
사회적 파급

66건 / 31%

제도 변화

37건 / 18%

인식 및 태도 변화 107건 / 51%



사회적 파급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적 파급을 일으키기 위한 프로젝트 66건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도 71건이나 됩니다. 보고서, 책, 다큐멘터리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활동과 사업 전체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는 IMF 당시의 국내외 자료를 모아 당시의 경제, 사회, 정치의 모습을 정리해 널리 알렸으며, 「울산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발자취를 찾아서」는 지역의 여성 항일운동가를 발굴하여 전시회, 찾아가는 역사교육 등을 했습니다.

사례

서귀포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서식 변화상 조사

단체

제주해군기지연산호조사모임
(간사단체 : 녹색연합)

지원기간

2014-2016 3년간

지원금

8,616만 6,000원

이끈 변화

- 연산호 군락지 모니터링 기록물을 담은 도감 제작 및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웹페이지 제작 (softcoral.greenkorea.org)
- 강정바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해군, 문화재청, 제주도 등 유관기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냄
- 산호 및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기록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으킴

좌. 강정등대의 아름다운 연산호

우.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를 촬영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연산호조사모임



변화의시나리오

**천연기념물
연산호와
제주 앞바다의
훼손을 알리다**

지역 주민과 지역 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가 강정마을로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 ‘강정마을 주민 의사에 기초한 민주적 결정 필요’, ‘환경영향평가 부실’, ‘평화의 섬, 제주의 군사기지 반대’ 등의 이유로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허가는 ‘기지가 건설될 바다의 연산호 군락 서식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앞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 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이 해군기지의 건설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조사모임이 결성됐고,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 속에 독자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해양환경이 훼손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보호종, 보호구역이라는 중요한 장치들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앞에 쉽게 해제되는 것을 보면서 강정 바다의 다양한 연산호 종의 이름과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이뤄 ‘제주연산호TFT’를 결성하고, 해상공사 감시 및 정기적인 연산호 모니터링·기록팀, 보도자료·국정감사 대응팀, 전시 기획·홍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산호 및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기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강정 앞바다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형형색색의 여러 해양생물과 공생하는 연산호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바다 생태계의 보호’라는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국제워크숍 참여

전문가 등이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미크로네시아, 오키나와, 하와이의 산호 전문가를 초청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함께 제주 바다를 조사했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확보해둔 강정바다의 계절별 모니터링 자료들은 2015년 국회와 지자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기홍 의원실, 박주선 의원실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훼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됐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알리며 국정감사에서 연산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제주도에서 자체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연산호를 포함한 강정 바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또 해군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활동가들이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한 자료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해군기지의 ‘조건 불이행’을 꼬집는 근거가 됐습니다.

“ 강정마을 주민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안인데, 모니터링

기록을 정리한 <강정바다, 연산호 보고서>를 언론에서 일종의 시민 과학의 기록물로 소개하면서 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어요. 20대 국회의 유기홍 의원실, 박주선 의원실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훼손 문제를 알고, 제주도가 자체 조사 예산 3억 원을 확보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됐죠.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

- 제주해군기지연산호조사모임(녹색연합) 신수연 정책팀장

인식 및 태도 변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이끄는 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한 가치, 인식,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107건을 지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체들은 직접 시민들을 만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를 도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을 만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힘쓰도록 인재를 키우는 ‘양성과정’도 다수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2,765명의 시민들이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각 전환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례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 ‘무지개돌봄(R-CARE)’ 개발

단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지원기간

2016 1년간

지원금

2,000만 원

친구사이 사무실에 붙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 현판



이끈 변화

- 우리나라 최초의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과정 개발
- 2019년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증
- 논문 ‘한국 동성애자, 양성애자 건강 불평등 연구’ 발표
- 상시 전화상담 창구 운영 중

변화의시나리오

자살 위기에 놓인 성소수자, 그 마음을 돌보다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자살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14년에 발표한 ‘한국 LGBTI(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제3의 성Intersex)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보면, 성소수자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이성애자에 비해 9배나 높고, 자살 시도율은 12배나 높았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3천여 명이 넘는 대규모 성소수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입니다.

이성애자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무려 12배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에도 우리나라는 성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교육이나 상담은 전무했습니다. 자살 위기에 놓여있는 성소수자를 돌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사이 회원들은 ‘마음연결’팀을 만들어 자살 위기자와 상담하며 성소수자 자살예방 활동을 하고, ‘무지개돌봄’이라는 성소수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사이가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과정에 앞장선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친구사이 회원들이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받던 중 정작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강사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강사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 없이 이론으로만 접근했던 것입니다. 친구사이는 성소수자 맞춤형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고, ‘무지개돌봄’이라는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성소수자를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론 강의는 기본, 상황극 실습도 진행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은 상담 기록을 기반으로 성소수자뿐 아니라 젠더퀴어, HIV 감염인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로 상황극을 구성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던 성소수자만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이 탄생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 과정에 맞게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상담 수요는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담당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무 교육을 늘려가며, 매년 연말 ‘무지개돌봄’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다 보니,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친구사이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속에 전문 연구팀과 협업하며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동성애자, 양성애자 건강 불평등 연구’가 그것입니다. 무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덕분에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적인 변화는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제도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는 모두 37건 진행됐습니다. 이중에 실제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도 10건이나 됩니다.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진행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파급, 인식 및 태도 변화 등을 위해 활동한 사업에서도 14건의 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물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수산물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 프로젝트의 경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일상적인 식품 방사능 오염 감시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제정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미아리, 변화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의 경우 미아리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대단위 성매매 집결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시민 공감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성매매 여성지원 조례 성북구(미아리) 의회를 통과하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사례

4대강사업 사후 모니터링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단체

시민환경연구소

지원기간

2015-2017 3년간

지원금

8,820만 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끈 변화

- 4대강사업 관련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논리적 모니터링 데이터 마련
- 4대강사업 이후 변화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사문화
- 4대강 평가단 조직에 영향(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나눠 진행하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

“그동안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한 사례도 없었고요. ‘무지개돌봄’은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한국 최초로 정부에서 인증한 사례예요. 제도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상담을 통해 자살을 정말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의 고충을 받아들이고 도우려했던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쌓이면 자살 예방이 될 거라고 믿어요.”

- 친구사이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박재경 마음연결팀장

변화의시나리오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4대강
녹조발생
문제를
의제화하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년간 20여 조의 예산을 들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공간 조성, 지역 발전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종료됐지만 이후에 물고기 폐사, 녹조 발생, 환경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환경연구소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보(洑) 건설 이후 변해가는 강하천을 살피는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알려진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4대강의 보 철거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낙동강이 인근 주민들의 취수원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는 '4대강사업 사후 모니터링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와 함께 실태 파악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부터 진행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주민들의 취수원인 낙동강 물이 보로 인해 간혁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했습니다. 수질 악화를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듣고, 주민네트워크를 확보했습니다. 변화된 수질을 모니터링하며 일본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수질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방법론 차이로 정부 조사 기관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방법론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언론에 공개되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물일원화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보의 자연성 회복'을 의제화했고, 문재인 정권이 수립되면서 4대강

관련 평가단이 만들어지고, 보 철거를 논의하는 씨앗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사문화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란 국가하천경계 2km 범위 내 지역에 주택, 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시민환경연구소는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나눠 진행하던 물 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사업에 대한 논의는 '수생태의 건강한 연결성 확보'라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물길을 확보하자는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도 많은 주민들은 보 설비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반대 운동을 진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 건설은 진행됐고, 목적성을 상실한 주민운동은 잠시 소강됐죠. 녹조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보 철거를 위한 주민 네트워크를 다시 한 번 구성하는 힘이 됐고, 4대강사업 문제가 국가 단위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됐어요.”

-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

시민사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본 변화

시민모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와 함께 사업을 전개해나가면서 사업의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단체의 사업비를 보완한 것뿐 아니라, 역량을 키워나가며 단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한 것입니다. 또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단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거나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며 활동력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성교육 및 일반 교육 참여자

3,467명

직접 코칭, 법률상담, 직접 지원 등

서비스 지원으로 만난 시민

618명

핵심목표

시민사회 역량 강화

활동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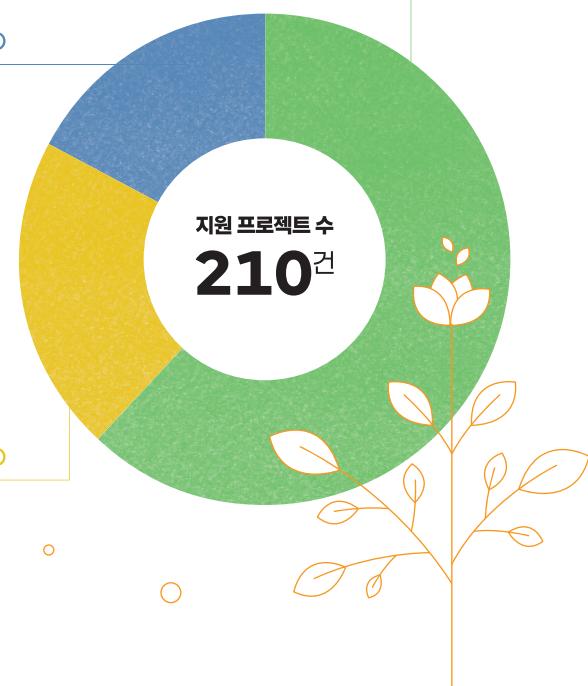
131건 / 62%

지속성 강화

35건 / 17%

네트워크 확대

44건 / 21%



활동력 강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추진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역량은 양적, 질적으로 향상됐습니다. 131개의 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활동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민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중장년 여성노동자 문화와 하나 되다 – 쉼과 회복, 당당한 노동자 삶의 도움닫기」, 「부산지역 쪽방주민 자치조직 만들기 – 내미는 마음」 등의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문조사, 캠페인, 토론회, 전시회 등을 추진하면서 단체들은 다양한 시민을 만나 변화의 실마리를 찾는 등 활동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례

광주·전남 이주민 노동인권 지원 사업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원기간

2018-2019 2년간

지원금

4,000만원

이끈 변화

-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고충 해결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발족
- 광주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 발행
- 이주민 인권 법률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의 네트워크 확대

좌. 동행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은 이주노동자
우. 법률 통번역가 과정을 수료한 이주민



변화의시나리오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원 토대를 만들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대부분 의료서비스나 한글·문화 교육, 컴퓨터 제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문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데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률 지원이라고 해도 그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난민, 인도적 체류자, 이주배경아동은 고용허가제, 체불 임금, 강제 퇴거, 난민 신청, 출생 신고, 사망 및 장례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공익변호사 단체인 동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주민들의 언어로 법률 상담을 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대신 만나 생활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인권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와 함께 ‘광주·전남 이주민 노동인권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행이 활동하기 전, 이주노동자들은 도움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더 긴 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제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사업주의 말만 듣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섬에서 일하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섬이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고용센터까지 갈 수도 없어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행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많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통역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용어를 이해시키고, 이주민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실습처럼 법률용어를 교육한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동행은 이주민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9년에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를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동행을 비롯해 다양한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과, 전남도청에서 먼저 실태 조사를 제안해오는 등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전국의 변호사 및 활동가들과 함께 ‘고용허가제 매뉴얼 다시 쓰기’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관련 작업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활동은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동행은 지금처럼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동 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를 발족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다른 지역에도 공익전업변호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법률 지원을 애탏하게 기다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에도 아주 많거든요.”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

네트워크 확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거나 네트워크를 확대해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연대와 협력으로 양적, 질적 향상된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총 44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 당사자가 제안하는 다문화 정책 플랜 만들기」,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얼마나 잘하나? 기업 성적표」, 「공원실험제(일몰제) 대응 및 조직화사업」, 「띵동! 지역에 무지개를 두드리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례

돌아온 해외 입양인, 한국 사회와 마주하다

시민모임
해외입양인네트워크

지원기간
2019 1년간

지원금
495만원

이끈 변화

- 해외 입양인의 현실을 강연, 워크숍, 에세이집 등을 통해 알림
- ‘케어팜’이라는 해외 입양인들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
- 대륙별 해외 입양인 네트워크 교류 계획 중
- 전 세계의 해외 입양인들과 연대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만든 해외입양인네트워크
‘카카오같이가자’ 모금 일러스트

변화의시나리오

돌아온 해외 입양인, 목소리를 모아 현실을 알리다

‘입양,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2020년 입양의 날을 기념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입양은 분명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문화도, 인종도, 언어도 다른 면 이국땅으로 가야 하는 해외 입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양인들은 종종 인종차별로 고통을 받습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없었더라도 어린 시절 갑자기 낯선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며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 평생을 혼란 속에서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 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시모나 은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지로 떠나는 긴 비행길 내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태어난 곳에서 뿌리 뽑혔다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낯선 땅에서의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소화할 수 없는 우유를 마셨고, 낯선 침대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새벽이면 침대에서 기어 나와 찬 바닥에서 자는 그를 네덜란드의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나란 새 이름을 얻었지만, 이름을 물으면 그는 또박또박 한국 이름 ‘은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도 네덜란드인도 아닌 그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생김새가 다른 그를 비난과 모욕으로 대했습니다.

시모나 은미는 말합니다. “좋은 가정에 입양될 확률은 사실상 로또와 같아요.” 해외 입양인의 자살률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3.7배나 높다는 스웨덴 보건복지청의 연구 결과가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나는 왜 그 어린 나이에 먼 타국으로 보내져야 했을까.’ 시모나 은미는 질문을 품고 스무 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시모나 은미는 한국사회에 진실을 알리고자 해외 입양인이 모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알려졌던 해외 입양인은 모두 성공하고 행복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만 하면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타국으로 떠난 아이들은 한국 정부의 외면 속에 입양 가정에서 온전히 홀로 문제를 떠안고 감내해야 했습니다. 해외 입양인 중 매년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은 100여 명. 양부모의 학대를 피해, 인종차별을 피해, 가족을 찾기 위해 등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자, 다양한 나라로 입양됐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입양인네트워크에 와서야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언어는 다르지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해외입양인네트워크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를 만나 가장 먼저 한 일은 해외 입양인들이 강연을 하고, 에세이집을 펴낸 것입니다. 한국 정부나 입양 기관은 해외 입양 이후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편딩을 진행해 ‘케어팜’이라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갈 곳 없는 해외 입양인의 임시 거처이자, 외로운 명절에 모이는 파티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해외입양인네트워크는 이런 연결망을 전 세계로 확장해 대륙별 해외 입양인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어떤 아이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만을 원해요.

해외 양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려는 욕심을 채우고, 한국은 그 대가로 입양 수수료를 벌죠. 한 친구는 양부모를 바이어(Buyer)라고 불렀어요. 한국 정부가 정말 한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먼 나라로 보내고 모른 척하지는 않겠죠. 저는 묻고 싶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공동체에 해외 입양인들은 포함되지 않는지요. ”

- 해외입양인네트워크 시모나 은미

지속성 강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많은 단체는 지속 가능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35곳은 회원 증가, 기부금 증가,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업 지원, 사업단위의 확장 등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확대 재생산됐으며,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참여 실천단」은 정부, 연구자, NGO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정책 제안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꿈꾸는 주민인권공작소-도서관이 꿈꾸는 인권마을안내가」 사업의 경우 영등포구 7개 기관과 인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자문위원으로 해당 단체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사례

풀뿌리 사회지표 발굴 제작과 지역 발전 전략 짜기

단체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지원기간

2015-2017 3년간

지원금

8,802만 원



사회지표 발굴에서 파생된 ‘옥천풀뿌리 대안정책 기획단’의 캠페인 활동 모습

이끈 변화

- 신생 단체의 정체성 확립, 역량 강화, 지속성 강화
- 옥천군의 풀뿌리 사회지표 발굴, 소책자 발간
- 풀뿌리 사회지표의 각 영역별 시민참여 유도
- 주민들로 결성된 ‘옥천 풀뿌리 대안정책 기획단’ 조성
- 옥천군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 정책에 영향

변화의시나리오

사회지표 발굴, 옥천군의 나아갈 방향을 바꾸다

사회지표를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 발굴’, ‘발굴된 지표를 공부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고민’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1~2년 차에는 지표에 대해 공부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옥천군 예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3년 차에는 지표 분석을 통한 지역 내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줄 대안과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표를 발굴하고, 공부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의 문제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제의식을 먼저 느끼고, 그 원인을 확인하고자 지표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옥천군 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낮은 이유,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부재 등 여러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표의 1차 정리는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진행했지만,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지표위원회에 모두 참여해 다양한 지표에 대한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들과 생각을 나누며 정리한 지역의 불편함과 구체적 대안 제시에 지표가 힘을 부여했습니다. 전문가들만 지표 발굴에 참여했다면 오히려 실효성이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 지 20년이 넘었지만, 옥천군과 같은 소도시의 주민들은 여전히 지역을 위해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에 소수의 지역 정치인이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고, 지자체의 예산이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발굴한 사회지표는 실제 옥천군의 정책에 반영되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수업’ 등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교육의제를 따로 전담하는 조직도 생겨났습니다. 옥천군의 주민주도형 교육과 돌봄교실은 타 지역의 선진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옥천풀뿌리 대안정책 기획단’은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도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한 프로젝트 경험을 자산으로 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고, 120여 명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다양한 컨설팅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단체를 인큐베이팅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는 등 계속해서 후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공약이었어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지표 발굴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표를 공부해 보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결과도 낳았죠. 이를 계기로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지역 단체를 연결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 다양한 의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성장해가고 있어요. ”

-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정순영 사무국장

그 외) 낯선 개념 알리기

앞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측면을 활동력 강화, 네트워크 확대, 지속성 강화와 같은 3가지 분류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화된 지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널리 공유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낯선 개념 알리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성원을 알리는 활동 혹은 존재하는 문화나 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활동 등 낯선 개념을 알리는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사례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입법 활동

단체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지원기간

2013-2015 3년간

지원금

8,600만 원

이끈 변화

-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 설립
- 목돈을 빌려주는 긴급자금대출
- 청년 공익활동가를 위한 저금리 학자금대출
- 공익활동가 유족에게 상호부조금 지원
- 조합원 1,880명의 안정적인 조합비 운용

(2020년 10월 기준)

동행에서 주최한 ‘공익활동가 이야기 포럼’에 참가한 활동가들



변화의시나리오

공익
활동가들이
비빌 언덕,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저임금과 과로에 시달리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조사 등으로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목돈이 없는 공익활동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도록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한 경비도 지원합니다.

7년 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익활동가의 비빌 언덕을 만들어온 동행은 2020년 현재 2천 명의 조합원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험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면, 공제회는 서로 돋는 상호부조의 의미가 강합니다. 매월 회비를 냄으로써 전국의 어디에선가 활동하는 공익활동가의 치료비와 생계비, 경조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가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몸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습니다. 개인보험은커녕 4대보험 없이 생활하는 활동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10년 전, 공익활동가의 월평균 소득은 13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81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두 자녀를 키우던 동료 공익활동가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유족이 살아갈 생계 기반조차 없다는 것에 주목한 몇몇 활동가들은 공익활동가들의 버팀목, 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제회를 처음 조성할 때, 공익활동가들이 무슨 공제회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이에 선뜻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주었습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하려면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단 것을 아름다운재단은 일찍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결과 보고대회」 자료, 2019.11.28.

동행이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 속에 처음 한 일은 공익활동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아플 때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갑니다”,
“학자금 대출이 3천만 원인데 제 월급으로는 이자
갚기도 벅찹니다” 예상했지만 활동가들의 삶은 훨씬
퍽퍽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 2014년
긴급자금대출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상호부조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활동가의 유족에게 3천만 원이라는
상호부조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금으로 고통받는
청년활동가를 위한 대출도 마련했습니다. 연이율 1%의
낮은 이자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활동가들이 매달
상환하는 돈으로 다른 활동가들에게 재대출되며, 서로를
지원하는 상생의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공제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활동가라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동료 활동가들이 놀랐어요. 공익활동을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사회 연대를 경험하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동행은 활동가란 이유로 대출을 해주고, 내가 갚은 돈으로 다른 활동가를 돋는다니까 놀란 거예요.
이게 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덕분이죠. 토대를 만들 때까지 3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지원해줬으니까요. 당시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동행이 만들어지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여진 사무처장

이웃의 고통에는
따뜻한 연대를,
고통스런 현실을
만드는 사회구조에는
근본적 해결을
모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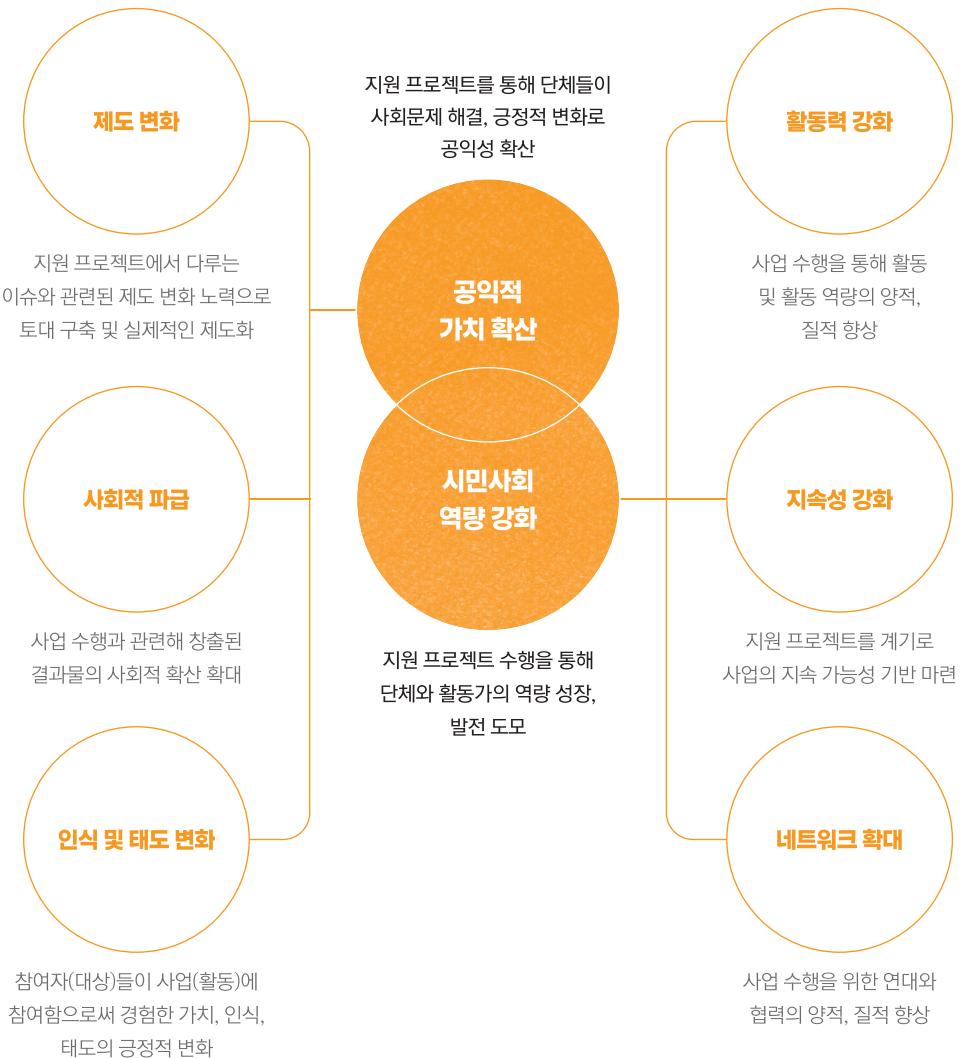
셋. 지금껏 이끈 변화, 지표로 확인해봤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다면, 뒤를 되돌아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한 것이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연구」를 시행하고, 성과를 측정해봤습니다.



2개의 핵심지표와 6개의 성과지표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기부자들이 나눠준 1% 기부금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1% 기부금이 가치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한계점이나 개선점을 살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해봤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지원금이 '공익적 가치 확산'을 해야 하며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를 지향하는 데 지원금을 배분하며, 앞으로도 큰 변화를 향한 작은 변화를 서서히 이끌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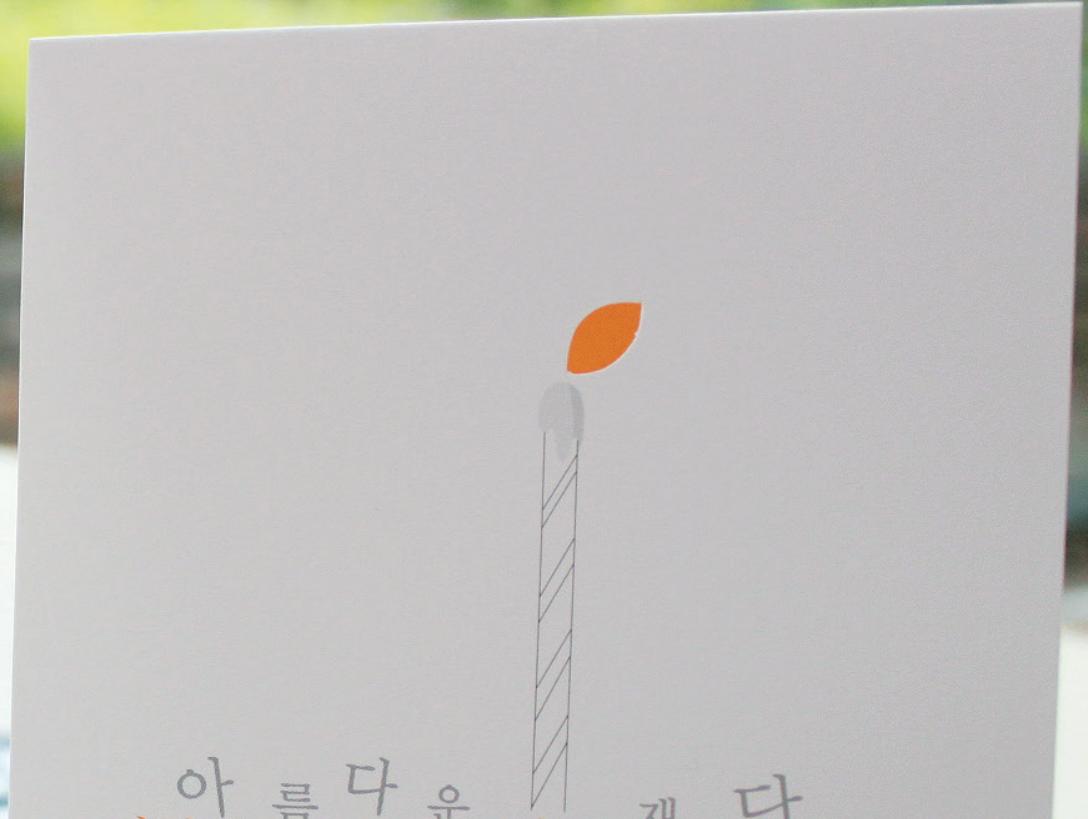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성과지표의 특징

- | | |
|---|--|
| <p>① 합의 지표
본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예. 재단, 배분위원회, 사업 참여 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인터뷰와 멤버파이조사를 통해 성과지표에 대한 구성과 내용에 있어 함께 공감하고 합의해 원리 기반(principle based approach)의 성과 지표를 구성함</p> | <p>② 과정 중시
참여 단체들의 활동 특성을 고려해 활동으로 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산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투입, 활동)도 동일하게 중시함</p> |
| <p>③ 질적 성과
목표 달성을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성적 지표를 병행함</p> | <p>④ 참여 지표
지원자(funder) 중심의 일방적 평가를 탈피해 사업 참여단체, 재단, 심사위원회 3자가 참여해 다면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상호작용적 지표가 되도록 함</p> |
| <p>⑤ 변화 지향
사업 참여 단체들의 성과가 산출을 넘어서 참여 주체들의 변화와 성장, 삶의 질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긍정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p> | |



넷. 사회 변화의 조력자, 아름다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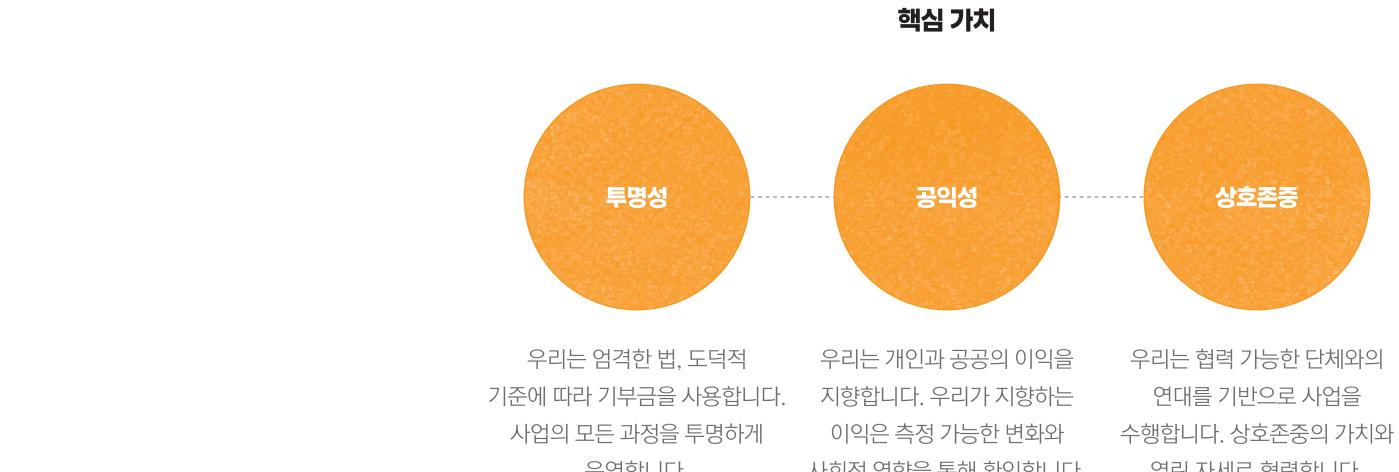


아 름 다 운 재 단

나무는 한 해 한 켜씩 나무에 흔적을 남기며 성장합니다.
아무도 절단면을 보지 않고는 나이테를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음을, 수액이 잘 흐르고 있음을
나무의 잎과 줄기, 그리고 나무의 껍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 켜, 한 켜를 살아가는 힘.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의 메시지를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아름다운재단의 비전과 미션



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의 '작은변화'는 작지만 큰 변화, 미래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시작을 뜻합니다. 더불어 공익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작은변화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실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록 ① 이끌어낸 제도 변화

2013~201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탈바꿈 프로젝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볼 수 있었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사전공개 시스템으로 변경함.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 어린이집 및 유치원(서울지역) 급식 현황을 분석함. 급식 현황 조사 이후에 각 지자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기초자료가 됨.

2013~2015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권리 프레임으로 삶을 읽다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시민 200여 명과 함께 생활 속에서 수정해야 할 사안을 논의해 천안시에 제안한 정책 26건 중 실제 9건이 예산에 반영됨.

2014~20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를 통한 '수산물 시민안전 가이드라인 및 정책 개선방안' 제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과 생협 조직(한살림연합, 에코생협, 아이쿱 생협 등)은 조합원 및 주부 대상 교육 활동을 40여 차례 이상 진행. 교육 활동을 통해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 급식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제외하기 위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부천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제정됨.

2014~2016

공익법센터 어필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사업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노동자 인권침해 현황을 직접 현지 조사해 인권침해 상황을 국내에 알리는 발표회를 갖고, 기업을 상대로 대응책을 마련함. 필리핀의 경우, 해당 공기업에 질의서 및 항의서를 보내 해당 기업의 입장을 받아내고, 관련 문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현지에서 인권침해 및 환경 파괴를 막는 일에 협조함.

2014~2016

제주도해군기지연산호조사모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서귀포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서식 변화상 조사
 국정감사를 통한 의제화 및 지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냄.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훼손 문제를 알렸으며,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지적됨. 지자체인 제주도에서 자체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연산호 포함 강정바다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2017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미아리, 변화의 씨앗 심기
 미아리 지역 재개발로 대단위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질 예정이었음.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간 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공감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간담회와 토론회, 사례집 발간과 전시회를 통해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주목함. 성매매여성 지원 조례 성북구(미아리) 의회 통과됨.

2017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아파트입주민과 경비원이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경비원 휴게공간 문제,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 진행. 시의원 4인이 참석하였으며, 춘천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의원이 대표 발의해 12월에 진행된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함.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흡하지만 경비원 휴게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됨.

2017~2019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대한민국 예비창업자 법률매칭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좋은 앱과 기술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해도 옛 법의 제재로 실용화시키지 못하거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함. 손가락을 짚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측정이 가능한 연속 혈당기 측정기기 앱 수입 및 사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받음. 고객이 직접 3D 프린터를 이용해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3D 프린터 사용 문제 등 승소함.

2018 이주민방송 MWTV

이주민과 미디어 : 방송과 영화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UN의 모든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에 관한 정부 보고서 심사 대응, 시민사회단체 인종차별보고대회, 유엔보고서에 반영함. 이후 UN인종차별위원회에서 방송사의 인종주의 문제 개선을 노력하라는 권고를 받아냄. 개발한 모니터링 툴은 넷플릭스, MBC 등에서 공유를 요청해오는 등 변화를 만듦.

2018 제주환경운동연합

용암이 만든 제주의 습지 보전활동
 습지보전조례 개정 TF가 제안한 조례 개정안이 2019년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통과됨. 개정으로 제주도 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성이 구체화되고, 습지의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 토지 이용 실태와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장조사가 포함됨. 또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와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람사르 습지 도시 관리계획 점검 등의 심의도 이뤄짐.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 도지사의 책무도 강화해 제주도의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으로 이어짐.

2018 환경운동연합

공원실험제 대응 및 조직화 사업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공식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으며, 서울/성남/수원/부산/인천/광주 등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발표함.

2019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 환경오염 모니터링
 안동댐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의 실질적 조사를 이끌어냄. 조사 결과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벽 보완,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조기 설치 등 보완조치 요청을 이끌어냄.

2019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 속 차별적 콘텐츠 수집 DB 구축 및 활용
 시중에 판매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여성혐오, 성역할 고정,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콘텐츠 조사 실시. 영유아 장난감 판매 시 성별을 구분해 판매 중인 대형마트에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7개사 모두 시정 조치됨.

부록 ② 새롭게 알린 낯선 개념

2012~2014

좋은예산센터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문가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행복과 관련된 지표를 논의한 프로젝트로 시민사회 최초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이를 계기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됨.

2014 생태지평

생태계 관점의 환경언어 프로젝트
‘환경 개념어 사전’ 제작
사전적·행정 중심적으로만 정의되어 있던 환경언어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사전을 정리함. 환경 개념과 역사, 현재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환경을 넓게 보고, 깊게 알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2014 한국여성민우회

서비스직·판매직 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드러내는 한편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권적 개선점을 문제 제기함.

2015~2017

옥천순환경제공동체
풀뿌리 사회지표 발굴·제작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민들이 처음으로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 지표를 만들어냄.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삶의 질을 측정 가능한 형태의 지표를 만듦.

2016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
‘무지개돌봄’ 개발
우리나라 최초로 대규모 성소수자(성인남녀 2,300여 명)가 참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이 프로그램 ‘무지개돌봄’은 2019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음.

2016 한국성폭력상담소

넌(NON)! 진상 프로젝트
여성·소수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길거리 괴롭힘이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을 개념화, 공론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셀프디펜스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함.

2016~2017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지역의 보편복지 정책으로서의 청년배당(기본소득) 모니터링 및 공론화 사업
청년배당(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심층 분석하고 공론화하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킴. 지방선거, 나아가 개헌논의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찾는 데 기여함.

2018 아시아의친구들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 모니터링’
장기구금 외국인 보호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을 범법자 다루듯 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인권 개선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목할 수 있도록 시민보고대회 등을 통해 알림.

2019 다른몸들

몸으로 쓰는 질병의 사회적 기록
이제껏 전문가(의료인, 보건의료학자)의 시선이나 의료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질병에 관한 논의를 환자들의 시선에서 사회적 맥락, 차별, 낙인 등에 대해 다룸.

2019 문화기획달

‘지방 스쿨미투’ 잔혹사 – 백래시를 넘어
‘지방스쿨미투’를 해석할 때, 등한시 되기 쉬운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짚어보고, 피해 사례 수집을 넘어 여성혐오적인 지역–학교 문화의 백래시를 분석함.

201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본국 귀환 사례
발굴 및 지원 사업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 실태를 알림. 국내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이유로, 본국에서는 외국인과 이혼했다는 이유로 잊혀지는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의 계기 마련.

2019 온도시

잇는-걸음 프로젝트
남한과 북한의 청년이 정치와 체제 논리가 아니라 서로의 배경이 다름을 인정하고, 문화와 취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젝트. 만남의 여정을 두 사람이 함께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통일의 경험을 축적함.

2019 해외입양인네트워크

돌아온 해외 입양인, 한국 사회와 마주하다
해외 입양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한국사회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해외 입양인들이 겪은 인종차별, 가정학대 등의 실태를 공개함. 해외 입양인들과 한국사회 사이의 접점을 넓혀가고, 입양 아동의 인권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함.

2019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일상 속 맥양집, 중고령층 성매매여성의 삶을 기록하다
맥양집에 있는 중고령 여성들의 구체적인 상황, 삶의 맥락, 욕구를 파악해 성매매 문제에서 흔히 제외되기 쉬운 중고령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를 공론화함. 서울 5개 상담소에서 ‘사각지대 중고령 성매매여성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성과를 냄.

2019 한국다양성연구소

모두를 포함하는 화장실(성중립 화장실) 프로젝트
화장실 이용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설치 확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생리현상의 안전한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배제된 이들의 존재를 새롭게 알림.

2019 직장갑질119

직장갑질 백신 프로젝트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직장갑질 제보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그룹과 함께 직장갑질 지표를 개발함.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지수 조사를 의뢰해 수치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직장갑질 공론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부록 ③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 제작물

2012 좋은기업센터

〈고장 난 거대 기업〉 양철북

잘못을 저지른 거대 기업에 맞서 싸워 결국 기업의 변화를 이끈 시민단체의 열두 가지 행동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 제작 당시에는 ‘좋은 기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전달하는 교육용 교재로 만들어졌으나 학생들의 열띤 호응으로 청소년 교양도서로 정식 발간됨.

2012 가족구성원네트워크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 계획〉

정상가족관련불가 전시회의 스토리북으로, 다양한 비정상 가족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 비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비혈연공동체 등 여러 가족의 사례를 통해 가족,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전환 등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음.

2013 교육공동체 벗

〈상상하라 다른 교육〉

‘불운한 교사 양성 과정-추운 시즌’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 아홉 편을 엮은 책. ‘착한’ 교사상을 거부하고 이 시대를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학생들과 나누는 교사, 비교교육적인 행위를 당당히 거부하는 교사 등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책으로 지금과는 다른 교사들이 제시하는 이상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엮음.

2013 여성주의영화제작소 ‘야’

〈자 이제 댄스타임〉 다큐멘터리

낙태 찬반 논란으로 모자이크 없이 대중매체에 등장한 적이 없던 다양한 세대의 임신중지 경험자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 이 영화를 통해 임신중지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 수상.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후반 작업 제작비를 지원함.

2014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탈바꿈〉 오마이북

현재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핵 문제와 전문가들의 의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정보들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펴낸 자료집. ‘탈핵을 위한 기본 입문서’라는 콘셉트로 쓰인 책인 만큼 후쿠시마 그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방사능이 인류 건강과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재생 가능한 대안에너지의 필요성 등을 다룸.

2014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 이매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 논의를 이끌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각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시나리오 책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12년에 진행한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작업의 연구 결과를 모아 집약한 책.

2017 대구참여연대

〈30년, 그리고〉, 〈대구, 6월의 합성과 미래의 목소리〉 삶이보이는창

〈30년, 그리고〉는 6월 항쟁에서 촛불 항쟁까지의 30년,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촛불항쟁이 어떤 의미로 비춰질지 1987년의 청년과 2017년의 청년 이야기가 담겨있는 2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 〈대구, 6월의 합성과 미래의 목소리〉는 대구지역 최초의 6월항쟁 기록. 촛불세대가 6월항쟁 세대를 직접 인터뷰하고 채록한 것으로 대구의 6월 항쟁을 다룬 지역의 첫 기록물.

2017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박영사

젊은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적인 내용은 물론 변호사들이 직접 2년간 창업 현장에서 생긴 사건·사고를 처리하면서 접했던 창업자들의 법률적 고충을 정리한 책. 벤처 관련 언론에서 이 책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책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무료 책자에서 정식 도서로 발간됨.

2018 한국이주여성센터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오월의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담은 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어떻게 폭력과 맞섰는지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이를 글로 엮음. 피해자이자 생존자로, 증언자이자 활동가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문화 사회의 실태와 모순을 파악할 수 있음.

2018 한국 HIV AIDS 감염인연합회 KNP+

〈선물,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HIV 감염인 오픈 토크와 심층 인터뷰를 이야기로 재구성한 기록. 62명의 100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언론(한겨레21) 보도 이후 책 구입 문의가 지속됨.

2018 환경운동연합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켜라〉

공원일몰제 도입으로 3년 후면 사라지게 될 도시공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녹지공간과 시민휴식처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작성된 보고서. 도시공원 관련 행정용어는 물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의 도시공원 현황과 해법,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과정 등을 다룸.

2018 농부시장마르쉐

〈농부시장 아카이브 사람 시장 동네〉

클릭 몇 번이면 무엇이든 집까지 배송되는 시대에 ‘농부시장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농부시장 기획자, 생산자, 유관 기관 담당자들이 만나 공통의 고민과 과제를 함께 나눈 기록.

2019 인권기록센터 ‘사이’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국가폭력 피해자, 중증화상 경험자, 탈북여성, 장애아동 양육 여성, 탈가정 청소년, 조현병 환자, 싱글맘, 70세 흄리스 여성, 스쿨미투 청소년 등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기록한 책. 이들을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바꿔나간 인물로 바라본 것이 특징임.

2019 다른몸들

〈질병과 함께 춤〉

의사나 간병인의 시선이 아니라,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시선에서 쓰인 책으로 질병에 걸린 뒤 어떤 차별을 겪고, 일상에서 어떤 부당함을 만나는지, 사회적 낙인이 개인의 몸을 어떻게 불건강하게 만드는지 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책.

한눈에 보는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임팩트 보고서

(2012~2019년 기준)

지원 프로젝트

210 건

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210건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원금

42 억 3,602 만 2,160 원

기부자들이 맡겨주신 소중한 기금 42억여 원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함께 나눴습니다.

참여시민

7만 3,211 명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 7만 3,211명을 만나 생각을 나누고 교류했습니다.

정책 제안

125 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125건을 제안했습니다.

제도 변화

24 건

지역사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시정을 요구하는 데 실제로 24건이 반영됐습니다.

이슈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153** 건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책과 다큐멘터리 등을 153건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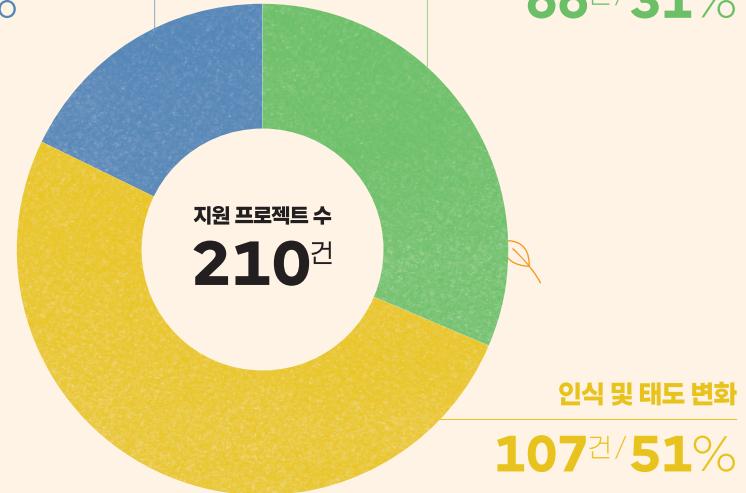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공익적 가치 확산

제도 변화

37 건 / **18%**

사회적 파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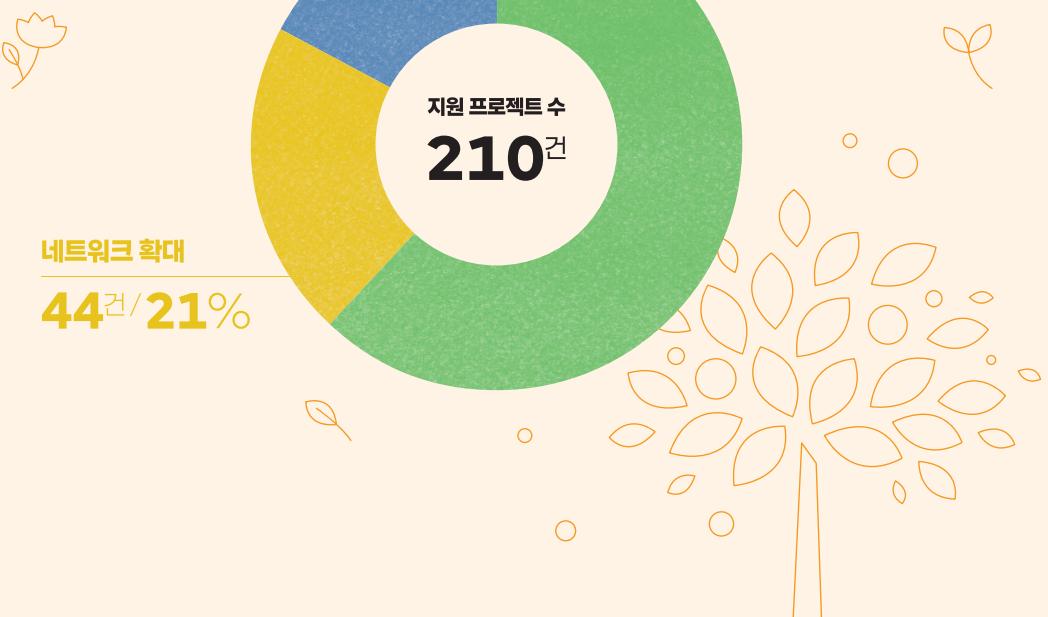
66 건 / **31%**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속성 강화

35 건 / **17%**

활동력 강화

131 건 / **62%**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임팩트 보고서

'시나리오'를 쓰듯 사회의 '변화'를 쓴 기록들

아름다운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옥인동 13-1)

전화 02-766-1004 팩스 02-6969-5196

홈페이지 beautifulfund.org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